

정부 R&D 예산 삭감 연구수주액 감소 우려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정부가 오는 2024년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13.9%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우리학교에서 이뤄지는 연구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지난 8월 정부는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는 최근 예산이 급증한 감염병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예산을 재구조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예산 삭감 이유로 연구 '효율화'를 거론했다. 비효율 요소

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성과를 내는 연구를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부에서 '나눠 먹기'나 특정 조직에 유리한 과제를 선정하는 문제가 있다"며 연구계에 '카르텔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R&D 연구에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및 재난 대응체계 구축사업(의학계열)과 로봇공학, 모델링, 인공지능, 원자력, 신소재, 사회시스템, 건설기술, 대기환경, 친환경·고효율 에너지(이공계열) 등이 있다.

그러나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해당 분야 연구비와 신규 사업 수주

감소가 예상된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개발은 국가 지원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2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연구비 수혜 실적 가운데 중앙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71%다. 특히 공과대학(공대)의 경우 연구개발 예산 80%를 정부 지원에 의존한다. 산학협력단 산학 기획실 R&D 기획팀 관계자는 "우리학교 R&D 연구 수주액 감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며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대 박민식(정보전 자선소재공학) 연구부학장은 "연구개발 예산 축소는 국내 연구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며 특히 기초 연구와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 대학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중장기적인 기초 연구와 인력 양성에 심각한 차



공과대학 실험실 모습 (사진=대학주보DB)

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선택과 집중은 대학 연구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연구부학장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수행 중인 연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다면 대학원생의 중도 포기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D 분야 예산 삭감에 연구실 학생들도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천승민(환경공학 2019) 씨는 "주변에 대학원을 희망하는 학생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사이에서도 예산 삭감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나

온다"고 말했다. 이어 천 씨는 "연구에는 필연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삭감은 국내 연구진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학교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A씨는 "인건비, 재료비, 실험장치 수리비 등은 점점 오르는 추세"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산학협력단 R&D 기획팀 관계자는 "각 부처의 예산 계획을 분석해 2024년 예상되는 연구비 변화를 추계하고 이에 따라 대응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R&D 카르텔은 우리 학교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학교의 우수한 교원이 가진 R&D에 대한 관심과 도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의 R&D 기획을 강화해 정부의 '효율화' 키워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열람실·기자재 개선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양 캠퍼스(양캠)에서 단과대학관과 기타 교육관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단과대학별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의 추진 배경·목적 및 진행 과정을 다룬 바 있다. (양 캠퍼스 교육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대학주보 1704호/2023.05.26.) 단과대학관을 제외한 기타 교육공간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진행 경과를 정리했다.

기타 교육공간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내 공간 효율화 사업 ▲도서관 열람실 환경개선 사업 ▲교육용 기자재 개선 등을 포함한다.

교내 공간 효율화 사업은 교내 효율성이 낮은 서울캠퍼스(서울캠) 청운관 지하 1층,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회관 1층을 학생 편의 공간인 라운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청운관은 2학기 동계방학 때 리모델링 예정이며, 국제캠 학생회관의 경우 협의 중인 단계로 추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양캠 중앙도서관은 열람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학생 휴식 및 자치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제2열람실, 제4열람실이 해당되며 10월 초 완공 예정이다. 기획조정처 학술진흥팀 김성환 팀장은 "서울캠 중앙도서관은 공사가 완료돼 오는

11월에 개소식이 예정됐다"며 "올해 계획된 환경개선사업은 동계방학을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제캠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계획단계에 지연이 생겨 12월 초 완공을 목적으로 교육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교육용 기자재 개선으로는 일체형 책걸상과 전자기기 교체 등이 포함된다. 이에 청운관, 멀티미디어관의 일체형 책걸상이 교체됐으며 유리철관,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등이 최신 기자재로 교체됐다. 김 팀장은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학생 요구를 반영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중점 투입했다"며 "앞으로도 구성원의 만족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인프라 개선의 일환으로 스마트캠퍼스구축사업단 부서가 신설됐다. 올해 11월에는 ▲모바일 학생증 ▲통합 앱 ▲학생 맞춤 서비스가 도입된다. 당초 우리학교는 ▲모바일 학생증과 학생포털 시스템 구축 ▲경희통합 앱 제작 ▲메타버스 캠퍼스 조성 3단계로 스마트캠퍼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중 1단계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학생들은 모바일 학생증을 통해 교내 건물 출입이 가능해지며 도서관 출입·좌석 배정·대출 및 반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제캠 학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재학생 제공)

학식업체 위생논란 민원쇄도

정예은 기자 yegold@khu.ac.kr

【국제】국제캠퍼스(국제캠) 제2기숙사 학식식당(학식)에서 이물질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민원도 쇄도하고 있다.

지난 품질 논란과 관련해 제2기숙사 측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학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계속됐다.

민원이 계속되자 학식 측은 "나사는 노후된 조리 기구에서 비닐과 벌레는 조리 전 재료를 준비하며 잘못 들어가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 "노후된 조리 기구 교체와 배식 전 세 단계의 점검을 거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식 측은 "우리 잘못이 맞고 정말 죄송하다"며 입장을 전했다. 이어 "더욱 주의해서 조리 중이고 같은 문제가 발생할 시 즉시 조리실 측에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적절한 배상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제캠 총학생회는 지난 8일까지 제2기숙사 학식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수렴한 의견은 학식 업체 리앤이라마띠네에 전달될 예정이다.